

섹시하게 귀엽게…여배우들 불꽃 대결

‘나쁜 녀석들’ 김아중 섹시 사기꾼
‘타짜3’ 최유화·임지연 매력 발산
‘미스터 리’ 12세 엄채영 눈물 자극

‘D-1’.
추석 연휴를 겨냥한 세 편의 한국영화 가 11일 나란히 개봉한다. 마동석의 ‘나쁜 녀석들:더 무비’와 박정민·류승범의 ‘타짜:원 아이드 잭’(타짜3) 그리고 차승원의 ‘힘을 내요, 미스터 리’가 예매율 경쟁 등 각축을 벌이고 있다. 추석 관객의 ‘민심’이 어느 영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작품의 ‘대표 얼굴’로 나선 이들 외에 저마다 매력을 지닌 또 다른 주역들도 이야기를 다채롭게 채운다. 김아중과 최유화·임지연, 엄채영이다.
2년 만에 스크린에 돌아온 김아중은 ‘나쁜 녀석들’에서 코미디와 액션을 넘나든다. ‘미친개’로 불리는 범죄자들이 팀을 이뤄 더 나쁜 악당을 소탕하는 이야기에서 그는 사기의 ‘기술’을 ‘탁월한 전략’으로 포장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인물. 그동안 범죄영화에서 익숙히 봐 왔던 여성 사기꾼 캐릭터와 비슷한 설정인 탓에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김아중은 그 한계를 닫고 특유의 매력으로 진부함을 뛰어넘는다.
김아중은 “마동석과 호흡에 기대를 걸고” 영화에 적극 나섰다. “코미디와 액션을 넘나드는 표현이 쉽지 않았다”고 했지만 영화에서 마동석을 긴장케 하는 유일한 인물로 활약하면서 제 몫을 한다.
‘타짜3’는 앞선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타짜3’ 최유화

‘미스터 리’ 엄채영

상반된 두 여성 캐릭터를 활용해 도박의 세계를 입체적으로 담는다. 이번엔 최유화와 임지연으로, 각각 주인공 박정민을 자극하는 도박판 설계자와 ‘허당’ 같은 타짜로 나서 매력을 과시한다. 출연 이유를 두고 공통적으로 ““타짜’이니까”라고 답할 만큼 시리즈에 애정을 품은 두 배우의 각오가 영화에 고스란히 담겼다.
캐스팅 과정은 언제나 치열하지만 김아중이나 최유화·임지연 등 기성 배우보다 더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주인공도 있다. ‘힘을 내요, 미스터 리’의 12살 연기자 엄채영이다. 극중 차승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비중을 가진 그는 제작진이 오랫동안 찾고 찾다 발견한 보석 같은 존재다. 극중 백혈병 투병 중이지만 씩씩하고 당찬 모습으로 아빠인 차승원과 호흡을 맞추고 끝내 관객의 눈물까지 자극한다.
연출자 이계벽 감독은 “엄채영은 오디션에서 배우들과 제작진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연기자”라고 했고, 차승원은 “연기하는 동안 나이가 의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나쁜 녀석들’ 김아중

10월이면 떠나는 윤종신…방송가, 후임 찾아 삼만리

‘라디오 스타’ ‘하트시그널’ 등 고심
“확실한 개성…윤종신 반자리 크다”

음악 창작 여행을 떠나는 가수 윤종신의 빈자리로 인해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인으로서도 확고한 개성을 자랑해온 그의 부재에 각종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윤종신은 10월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새로운 음악을 위한 해외 여행길에 나선다. 복귀 시기도 정해놓지 않아 MBC ‘라디오스타’ 등 기존 출연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13일 종영하는 케이블채널 엠넷의 ‘더콜2’가 마지막 방송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윤종신이 12년 동안 진행한 ‘라디오스타’의 후임 자리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작진은 당분간 스페셜 진행자를 초대해 방송을 꾸려갈 예정이다.



윤종신

그가 이끈 채널A ‘하트시그널’도 마찬가지. 시즌3를 준비 중인 이진민 PD는 “윤종신과 새로운 시즌도 함께 하고 싶었다.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새 진행자를 어떻게 꾸릴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윤종신은 풍부한 무대 경력과 탁월한 진행 능력으로 방송인으로서 독보적인 입지

를 굳혔다. ‘더콜2’의 이선영 책임프로듀서는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진심으로 즐기는 사람”이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진행자”라고 평가했다. 이진민 PD도 “어떤 환경이 주어져도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예능프로그램 연출자들의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 제작진이 윤종신의 부재에 고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디오스타’의 연출자 최형호 PD는 “윤종신의 후임 진행자란 점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연예인이 많다”며 “이에 새 진행자는 윤종신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지닌 연예인을 기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디오스타’뿐 아니라 윤종신이 진행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의 빈자리를 빠르게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트와이스

트와이스 23일 미니앨범 ‘12곡 연속’ 흥행 도전장

5개월 만에 새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국내의 활동을 시작하는 걸그룹 트와이스에게 이전과는 다른 시선의 관심이 쏠린다.
9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23일 미니앨범 ‘필 스페셜’(Feel Special)을 선보인다. 동명의 타이틀곡을 내세운 이들에게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컴백을 앞두고 지난 달 초 멤버 지효와 가수 강다니엘의 교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걸그룹 등 아이돌 가수들의 연애사가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칫 팬들의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다. 실제로 지효와 강다니엘의 교제 사실이 공개된 직후 양측의 팬덤이 대립했고, 걸그룹 특성상 남성 팬이 많다는 점도 작용했다.
하지만 대부분 팬들은 트와이스의 컴백을 반기며 지효의 사생활보다는 그룹 전체 활동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새 앨범 발표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SNS 등을 통해 트와이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가요계에서는 트와이스가 2015년 발표한 데뷔 곡부터 시작해 4월 발표한 ‘팬시 유’까지 11곡 연속 흥행에 성공해 이번 활동으로 이를 이어갈지 주목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1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3

노엘 “음주운전 했다” 뒤늦게 시인



노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19)이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자료를 찾으면서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에 들어가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노엘이)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을 보강해 엄정 수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엘은 7일 오전 2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하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간미연

황바울

간미연, 연극배우 황바울과 11월 결혼

가수 출신 연기자 간미연(37)이 세 살 연하 연극배우 황바울과 11월 결혼한다. 소속사 드림스톤엔터테인먼트는 9일 “간미연이 11월9일 서울 동송교회에서 황바울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부터 교제해왔다. 황바울은 뮤지컬 ‘총각네 야채가게’ ‘사랑은 비를 타고’ 등에 출연했다. 간미연은 1997년 그룹 베이비복스로 데뷔한 뒤 현재는 연기자로 활동 중이며 최근 영화 ‘요가학원’에 캐스팅됐다.

고레에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10월 개막하는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는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매년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출중한 업적을 남긴 아시아 영화인 및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지난해 ‘어느 가족’으로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으로 호평 받았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얼마 만의 스포츠 드라마야”…‘남 단장’이 떴다

한때 시청자 시선을 사로잡았던 스포츠 드라마가 새롭게 나온다. 연기자 남궁민이 주연해 11월 방송하는 SBS ‘스토브리그’로,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 종목인 프로야구를 소재로 삼는다.
‘스토브리그’는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프로야구단에 새로 부임한 단장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을 펼쳐 보인다. 치열하게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이 주인공이 아닌 그들 뒤에서 팀을 위해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남궁민이 극중 단장으로 나서 마케팅, 전력분석, 스카우트 등 프로야구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모습을 전면에



남궁민

내세운다. 스토브리그는 프로야구의 한 시즌과 다음 시즌 사이 기간으로, 선수 등 계약 갱신이나 트레이드가 이뤄진다.
2009년 피겨스케이팅을 다룬 MBC ‘트리플’ 이후 10년 만에 안방극장을 찾는 스포츠 드라마이다. 2016년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한 SBS 단막극 ‘픽!’ 등이 있었지만 시청자의 시선에 깊게 파고들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드라마가 방영하는 11월은 한국시

남궁민, 11월 SBS ‘스토브리그’ 주연

리즈 개최를 전후한 시기라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은다. 지난 시즌 프로야구 한국시리즈는 11월12일, 2017년에는 10월30일 최종 우승자를 가려냈다. 한국시리즈는 지상파 방송 채널에서 중계방송해 그 열기를 드라마가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본을 집필하는 이신화 작가는 9일 “프로야구 팬들의 취향이 다가가는 것은 물론 야구를 잘 알지 못하는 시청자에게도 짜릿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품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